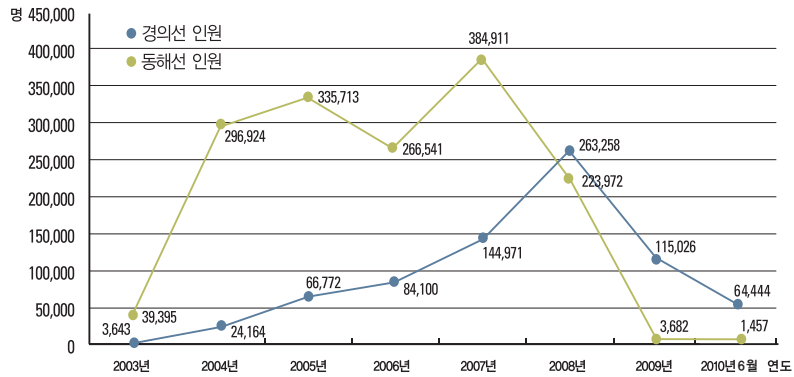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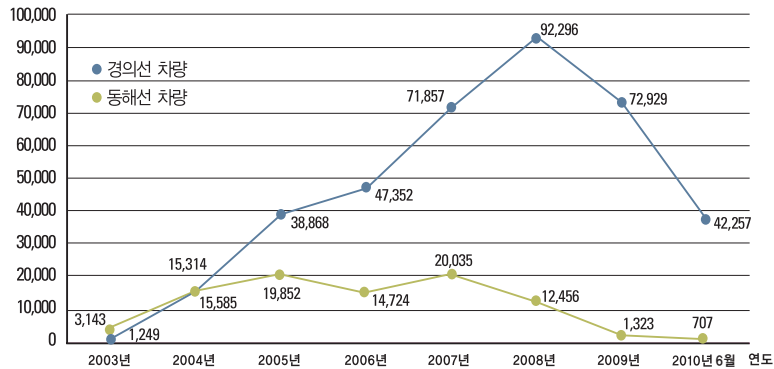


출경인원 변동 추세



출경차량 변동 추세



#### 다. 남북화물열차 운행 현황

2005년 12월말 경의선 구간(문산~개성, 27.3km)과 동해선 구간(제진~금강산, 25.5km)의 남북간 연결철도 궤도 부설공사가 완료되어 열차운행을 위한 기본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7년 4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 합의를 통해 2007년 5월 17일 남북열차시험운행

을 실시하였으며, 2007년 12월 11일부터 경의선 우리측 도라산역과 북한측 판문역간에 남북 화물열차가 토·일요일을 제외하고 주 5회 정기적(오전 9시에 도라산역을 출발, 오후 2시에 북한 판문역을 출발)으로 운행하였다.

당초에는 총 12량(기관차 1, 화차 10, 차장차 1)의 차량을 편성해 운행하였으나, 2008년 2월 1일부터 남북간 합의에 따라 화물이 있는 경우에만 화차를 운행하고, 화물이 없는 경우에는 기관차와 차장차만 운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남북화물열차는 북한의 육로통행 제한조치에 따라 2008년 11월 28일 이후 운행이 중단되었다.

화물열차 운행기간(2007년 12월 11일~2008년 11월 28일) 동안 화물 운송량은 총 222회(왕복 444회)에 걸쳐 총 17회 31량 318톤을 기록하였다. 이중 우리측에서 북한측으로 반출된 컨테이너는 24량 235톤이고 북한측에서 우리측으로 반입된 컨테이너는 7량 75톤으로 주로 개성공단 관련 반출입 물자를 수송하였다.

이처럼 화물운송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개성공단내 대부분의 생산제품이 다품종 소량이고, 열차를 통한 화물운송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지며, 북측지역 역사의 인프라 또한 아직 미비하기 때문이다. 특히 철도를 통한 화물운송은 최소한 200~300km가 되어야 하는데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운송 목적지가 주로 100km 이내인 경인지역이어서 철도를 통한 화물운송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측은 2009년 8월 20일 통지문을 통해 화물열차 운행을 12월 1일 제한조치 이전으로 원상회복하겠다고 통보하였으나, 우리측은 구체적인 운행재개 여부·시점은 물동량 등 화물 수요를 보아가면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 라. 남북관계 특수성에 따른 출입통행 조치

북한측이 2008년 12월 1일 개성지역 출입제한조치를 일방적으로 실시

하여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한 출입에 큰 지장을 초래하였고 키리졸브 군사 훈련기간 중에는 남북간 군통신선을 차단해 출입통행이 일시 중단되기도 하였다. 그 외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 반출물품검사 강화, 신종플루 확산방지를 위한 검역 강화 등 남북관계 특수성에 따라 출입통행조치도 부침이 반복되어 남북출입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원활한 출입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출입제한조치로 인한 민원인들의 출입통행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성지역 출·입경 기준을 마련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까지 시행하였다.

#### 출입경 기준 주요내용

- ① 매일 09:00 출경과 15:00 입경시 승용차를 이용한 출입을 금지
- ② 대체 교통수단으로 매일 09:00, 10:00 출경과 15:00, 17:00 입경시 서울-도라산-개성공단간 정기 셔틀버스 운행
- ③ 출입경 인원이 많은 월·금·토요일에는 입주기업과 건설업체별로 시간대를 구분·출입
  - 입주기업 : 월 9:00, 10:00 출경 / 금 17:00, 토 15:00 입경
  - 건설업체 : 월 11:00 출경 / 토 16:00 입경
- ④ 나머지 시간대는 인원·차량 공히 선착순(방문 3주전부터 접수)

한편, 북한측이 반입금지물품의 휴대·탑재 등 규정위반자에 대해 방북을 허가하지 않고 즉시 복귀시키는 등 통제를 강화함에 따라 동 사실을 출입 예정자들에게 사전 홍보하고 출경현장에서 휴대품 및 출입증·체류증 소지여부를 직접 점검·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즉시복귀자의 발생을 최소화하였다.

키리졸브 군사훈련 기간동안에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를 통하여 북측에 출입통행계획을 전달하였으며, 출입통행계획에 대한 동의문서도 개성

공업지구관리위원회를 통해 수신하였다. 북한군에서 방북동의 통보가 없을 경우와 통상적인 동의시간(당일 08시 전후) 이후에 동의서를 통보할 경우 등에 대비하여 출경과 관련한 변경상황을 출경대기자에게 수시로 안내하였다.

또한 2009년 5월 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으로 유엔안보리 제1874호가 결의됨에 따라 남북출입사무소는 2009년 7월 유엔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관세청과 협력, 기존 반입물품 검사와 더불어 전략물자·사치품 등 대북 반출금지 물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였다. 특히 화물에 대해서는 컨테이너 검색기를 활용한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출경 20분전까지 심사를 마감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2009년 말부터 신종플루 환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개성지역을 출입하는 우리 국민에 대한 보호와 북한지역으로의 확산을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남북출입사무소는 우선 신종플루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조하여 출·입경자를 대상으로 열감지기 및 고막체온계를 이용하여 검역을 실시하고 기존 입경검역과 더불어 출경검역도 실시하는 등 검역을 강화하였다. 개성공단내에서 의심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긴급 입경 조치 후 감염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는 등 신종플루 확산 방지에 주력하였다.

## 4. 남북간 해상 및 항공운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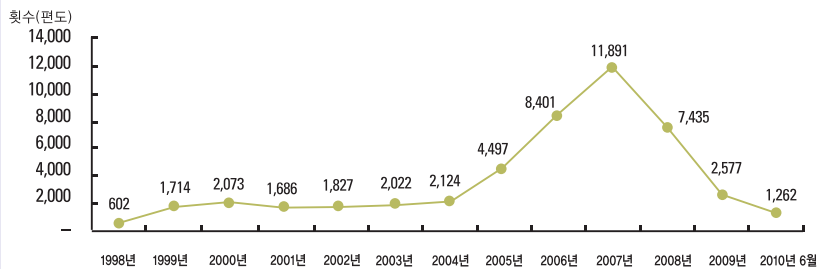
### 가. 해상운송

2005년 8월에 발효된 「남북해운합의서」와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에 따라 우리의 인천, 군산, 여수, 부산, 울산, 포항, 속초 등 7개항과 북한의 남포, 해주, 고성, 원산, 홍남, 청진, 나진 등 7

개항 간에 해상항로가 개설되어 남과 북의 국적선이 운항되고 있다. 이와 함께 2005년 8월 15일을 계기로 북한선박이 제주해협을 통과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05년 8월부터 남과 북의 해사당국(남: 통일부, 북: 육해운성)은 전화 1회선과 FAX 1회선의 유선통신망을 설치하여, 1일 2회(오전, 오후)씩 정기적으로 통화하면서, 남북간 선박운항 허가 및 각종 사고시 긴급 통보, 선박운항정보 제공 등을 통해 남북간 선박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항을 지원하고 있다.

남북간 선박운항 현황



2009년 남북간 선박운항은 편도기준 총 2,577회로 2008년 대비 65.3%가 감소하였다. 우리측 선박은 해주·고성 등지의 바다모래와 수산물 반입 감소로 2008년보다 71.5%가 감소한 2,044회를 운항하였다. 북한 선박은 주로 수산물 수송 증가 및 2009년 5월부터 인천-남포 간 정기 화물선(동남1호)이 투입되면서 2008년보다 109.8%가 증가한 533회를 운항하였다. 2010년 1~6월 중 남북간 선박운항은 편도기준 총 1,262회였다. 한편 2010년도 5월 24일에는 천안함피격사건과 관련 북한 선박의 우

리 해역 운항을 금지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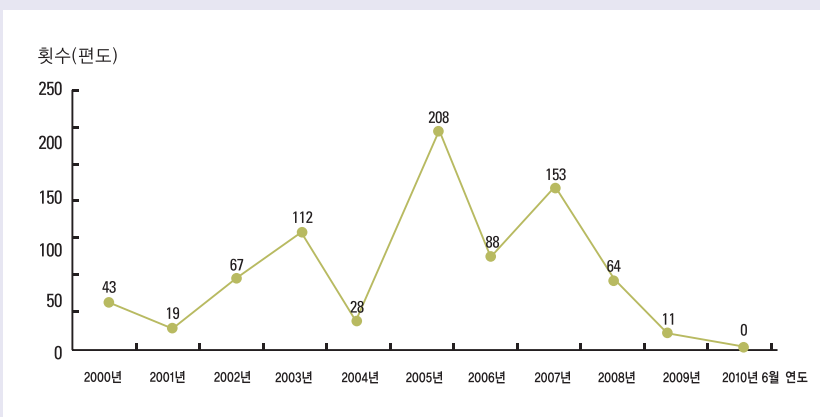
남북해운합의서 발효 이후 2010년 6월까지 북한 선박은 우리측 해역을 총 2,165회 운항하였으며, 이 중 남한과 북한간 운항은 1,477회, 우리측 해역을 통과해서 북한에서 북한으로의 운항(예: 서해 남포 ↔ 동해 청진)은 688회였다.

### 나. 항공운송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서울-평양간 서해를 우회하는 직항로가 개설된 이후, 남북간 항공기 운항은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였다. 2009년에는 당국간 회담 및 민간 방북행사가 중단되면서 남북간 항공기 운항도 2008년 대비 82.8% 감소한 11회를 기록하였다. 2009년에는 러시아 외무장관의 북한 경유 방한, 김대중 前대통령 서거 북한 조문단 방남 및 보즈워스(Stephen Warren Bosworth)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 미국정부 대표단 방북을 위한 항공기 운항이 이루어졌다.

2010년 1~6월 중에는 남북관계 상황 악화에 따라 민간 방북행사 등이 전무하여 남북간 항공기 운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남북간 항공기운항 현황



## 제5절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 1. 개소 및 운영 경과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경제협력을 발전시키고 거래방식을 직접거래방식으로 전환해 나가기 위하여 2005년 7월 12일 제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개설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같은 해 10월 28일 개성공단 내에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를 개설하였다.(2008.2.29 대통령령 제20721호, 남북교류협력협회사무소 개칭)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는 개성공단 내에 위치한 정부기관으로서, 남북당국이 동일건물에 근무하면서 상시 접촉을 통해 남북사이의 경제거래 및 투자의 소개와 자문, 연락지원, 편의 보장, 교역·투자 관련자료 제공, 사업협의 지원, 교역상담회·설명회 개최, 상품전시회 참가 지원 등 남북경제교류협력사업을 현장에서 지원하고 촉진하는 업무를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다.

한편, 2008년 3월 24일 북한측의 일방적인 조치에 따라 3월 27일 당국인원 11명이 철수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24일 북한측의 일방적인 사무소 폐쇄 통보로 12월 1일부터는 사무소 기능이 정지되었다.

그러나 북한측은 2009년 8월 20일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명의로 “경제협력협회사무소를 정상 운영하며 해당관계자들의 출입·체류를 이전과 같이 한다”고 통보하였으며, 9월 1일에는 경제협력협회사무소 북측사무소 명의로 “9월 4일부터 경제협력협회사무소를 정상 운영하려고 하니 양측 사무소명단을 9월 2일 교환하자”고 우리측에 통보해 왔다.

이에 우리측은 9월 2일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남측소장 명의로 “우리측 내부준비관계로 9월 7일부터 정상운영하기를 희망하며, 양측 사무소

명단은 9월 3일 교환하자”고 북한측에 수정 제의하였으며, 북한측이 우리측의 수정제의에 동의함으로써 남과 북은 9월 7일부터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운영을 정상화하였다.

한편,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에 따른 대북조치 발표(2010.5.24) 이틀 후인 5월 26일 북한측은 “남측 당국이 함선사고를 우리와 연계한 것은 진상을 왜곡한 것으로 금일 이시간부터 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동결·철폐하고, 남측인원 전원을 금일 오전 12시까지 추방한다”고 북측사무소장이 구두로 통보해 왔다.

이와 같은 북한측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응하여 우리측은 동 조치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사무소 폐쇄·인원추방에 따르는 모든 책임은 북한측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지적하였으며, 5월 26일 당시 개성 체류인원 8명이 모두 철수하였다.

## 2. 민간 경제협력사업 추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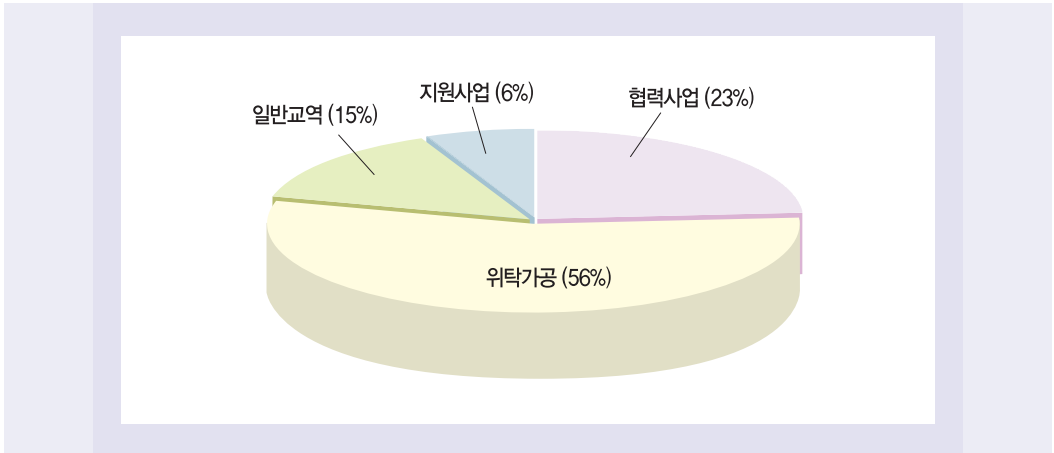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기능 정지로 2008년에는 중국 단둥에서 개최되었던 춘하북 위탁가공 상담회가 2009년 9월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기능이 정상화됨에 따라 협의사무소에서 2차례 개최(2009.11.10~12.15, 2010.1.25~2.13)되었다. 여기에는 총 65개 우리측 업체 관계자 171명과 북한측 업체 관계자 231명이 참가하여 2010년 춘·하북 약 1,298만 장(약 2,429만 달러 규모)의 물량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2009년 9월 7일 기능 정상화 이후 2010년 5월 26일 철수시까지 192회의 남북 민간기업간 사업협의를 진행되었으며, 2005년 10월 28일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개소 이후 2010년 5월 26일까지 위탁가공 821회, 협력사업 333회, 일반교역 226회, 지원사업 96회 등 총 1,476회의 사업협의를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우리측 4,703명, 북한측 4,467명 등 총 9,170명의 인원이 남북경제협력협사무소를 이용하였다.

2005~2010년 사업형태별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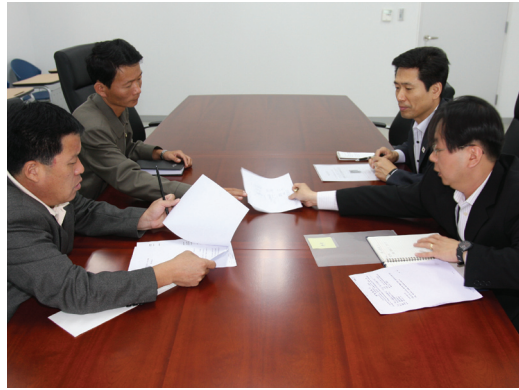
또한 남북기업간 직접통신이 곤란하고 현지공장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서 남북 경협업체간 사업제안, 작업지시, 작업진도 파악, 출하제품 선적 확인 등 다양한 협의문건을 남북경제협력협사무소를 통해 교환함으로써 남북 민간경협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였다. 2009년 2,147건을 비롯

남북간 사업협의를 및 참석인원 현황

연도별	사업형태별 사업협의를 건수(건)					참석인원(명)		
	위탁가공	협력사업	일반교역	지원사업	계	남 한	북 한	계
2005년	13	16	9	5	43	160	111	271
2006년	222	131	69	24	446	1,396	1,149	2,545
2007년	316	94	64	36	510	1,540	1,386	2,926
2008년	156	64	46	19	285	1,012	1,040	2,052
2009년	75	13	23	7	118	339	461	800
2010년 (5,26기준)	39	15	15	5	74	256	320	576
합 계	821	333	226	96	1,476	4,703	4,467	9,170



남북기업간 사업협의 장면(2009.12.15)



문건전달 연락관 접촉 장면(2009.9.23)

하여, 사무소 개소 이후 2010년 5월 26일까지 남과 북은 총 2만 7,862건 (남→북: 1만 3,743건, 북→남: 1만 4,119건)의 문건을 교환하였다.

이와 함께 남북간 민간경협 추진과정에서 상시적으로 송달이 필요한 견본품을 택배시스템을 활용하여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를 통해 교환·전달하는 견본송달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견본품 전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남북 민간경협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크게 기여하였다. 남북 사무소간 견본송달 지원에 관한 합의서 체결(2006.5.4) 이래 2010년 5월 26일까지 총 1,635건의 견본품이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를 통해 교환·송달되었다.

#### 견본 송달지원 체계



연도별 대북 민간경협 지원실적

연도별	사업협약	문건증개	견본송달
2005년	43	27	1
2006년	446	3,221	222
2007년	510	7,325	484
2008년	285	11,630	686
2009년	118	2,147	97
2010년 (5.26 기준)	74	3,512	145
합 계	1,476	27,862	1,635

### 3. 남북경협 기업과의 소통 강화

남북경제협력협약사무소의 기능이 정지된 기간(2008.12.1~2009.9.6)에는 그동안 협의사무소를 이용해 왔던 대북 경협기업을 대상으로 남북관계 상황을 설명하고 남북 경협기업의 의견을 수렴하는 경협기업 간담회(27회, 55개 업체대표 참가)를 개최하여 정부와 경협기업간 소통을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대북 경협사업에 관심있는 지방기업을 대상으로 대북 경협사업 추진절차 안내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방소재 기업에 대해 남북 경협사업에 관한 이해 제고를 도모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민간의 남북경협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한 의견교환 및 정부와의 소통 강화는 물론,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와 대북 경협사업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